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리는 재앙들

(계6:1~6)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리는 재앙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 때문에 유명해졌지요.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인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1815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주국 영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196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1974년에는 유엔에서 축출되고 미국과 유럽공동체의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 1994년에 이제는 고인이 되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흑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천하에 인종차별 정책 철폐를 선언하고 알리게 됩니다.

자~,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의 사회가 어떻게 돼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었지만, 인종차별 정책 철폐 이전의 흑인의 삶과 흑인사회, 그리고 백인의 삶과 백인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흑인들은 광활한 지역에 붙어있는 흑인지역 안에 게딱지 만하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데, 그들의 생활상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200m마다 수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 하나에 무려 800명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어지간하면 집에 수도꼭지는 다들 있잖아요.
아무리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가 되었어도 이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백인들이 다부지게 마음먹고 절대로 백인 중심의 사회체제를 오픈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백인 중심으로 구축되어진 사회체제에 길들여진 백인들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이 특이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부에서부터 그걸 깨나가지 않으면, 그 폐쇄돼 있는 백인 중심의 사회지배체제가 깨어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흑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흑인 한사람이 백인사회에 뛰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치 비키니 입고 명동 한복판에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명동 한복판에 비키니 입고 들어간다고 누가 말리겠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비키니 입고 거기 서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흑인들이 이런 마음일 거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백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체제에 들어왔다고 해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사회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는 얘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백인들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굳어진 300년 동안 구축되어진 사회체제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을 법적으로 없앤다는 말 한마디로 이 체제가 깨어져 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제가 문화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제 일곱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공중을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중이라는 게 마음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차원이 공중의 차원이에요.
공중을 지배했다는 건 우리 마음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체제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중심의 지배체제가 300년 동안 구축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아담 이후에 이 지구 위 전체에 구축되어진 사탄의 지배체제입니다.
이 사탄의 지배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양으로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셨던 어린양과 관계되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어린양이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게 바로 복음사건인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소식인데 이게 재앙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재앙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앞서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재앙으로 작용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해오던 사탄 중심의 지배체제, 이 지배체제에 재앙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세 가지 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격적인 사건으로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도 70억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체제가 파괴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요한에게 주셔서 교회에 전달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죽임 당하신 어린양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당하는 거고 패배하는 거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실제로는 보이지는 않지만(그 일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지요) 아담 이후에 전 인류, 이 지구 위의 인간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지배체제가 파괴되어나가는 재앙으로 역사하는 순간이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 같아서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탄의 지배체제에 대해 어떤 면에서 재앙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말고,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사건 전체를 그냥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니까 자꾸 전쟁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을 할 때 말을 탄 사람들이 활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제로 많지 않아요.
60년대 로마의 속국이었던 어떤 이방민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전쟁에서 크게 져서 창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활을 들고 전쟁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 몽고 민족이 활을 들고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가면서 활을 쏴서 과녁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요한이 뭔가 성령을 통해 보면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속에서 표현해내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활이 나타내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죄의 지배체제 안에 있어요, 죄.
근데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활을 쐈을 때 과녁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에요.
이 죄가 어떻게 비롯되게 됐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빗나감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린양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명중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빗나가는 것이 죄고, 빗나가는 죄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태어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이제 명중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중은 뭐고 빗나가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이 뭘 명중시킨다는 얘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형상의 얘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인간도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비어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비어있으므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탄이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채워지는 내용을 빗나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뻐져야 그게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관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과녁을 사탄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빗나가게 한 거예요.
그럼으로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녁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들여서 기쁨으로 귀결이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의 5감각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체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무엇을 통해서 만족해야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게 다 사탄의 지배체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난 게 뭡니까?
나는 단순히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죄 값이 다 사해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신앙고백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내 인격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앙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계시로 보이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체제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중심의 사회에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백인들에게는 재앙이죠, 흑인들이 대거 진출한다

고 하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지배체제에 재앙으로 임한 것이 십자가사건이고, 그 첫 번째가 과녁에 적중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배체제가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은 도대체 뭘까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붉은 말을 타고 오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언뜻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앞에서도 정복자라고 말하고 이것 또한 검이 있으므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전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인다고 해서 다 전쟁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주는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서로 죽인다', 내가 내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칼로.
그게 복음사건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내가 내 아내를 죽일 때 사탄의 지배체제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죽여요,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아내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서 아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시험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사탄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어떡하든지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 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생각할 때 가장 인간들이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기 쉬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친구고 애인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집어넣음으로써 기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하는 겁니다.

기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지배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식이 가득 들어오게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부부가 화평하게 지냅니다, 이 화평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지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원래 인간은 아내와 남편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거지.
마음은 남편도 아내도 각자 하나님과 하나 된 독립된 단위로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사랑의 과녁을 적중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그게 비로소 온전한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지배체제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면, 하나님 대신에 부부, 부부가 먼저지!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 이룬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고, 부부가 하나고 내 자식과 부모와 그렇게 우리라는 울타리 안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울타리 바깥에 계십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화평하게 해주시고…' 이 가족 간의 화평,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체제 안에 있었던 강력한 인프라였던 거예요,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구축한 인프라, 기간산업이 바로 가족 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이고 친구사랑이고…
이런 식의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적중하는 하나님사랑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한 단위로서 완전한 인간이 돼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과녁이 적중된 관계로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이 있기 전에 과녁을 친구로 삼고 남편과 아내로 삼아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수록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지배체제의 강력한 인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위해 마음 안에 남편과 아내 가족, 부모 자식, 다~ 없애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으로 온전한 인간이 된 상태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

아가는 이게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지금 70억 인구가 다 그 지배체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인프라가 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검은 말을 탔는데 저울을 가졌는데,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그리고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는, 그 당시의 물가에 비교하면 열두 배에서 열여섯 배는 비싼 거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밀 한 되밖에 못 산다는 것은 열두 배에서 열여섯 배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절에서 기근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기근이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상징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activity를 말합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 동안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하루 동안의 모든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보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오복의 쟁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 오복과 행복, 이 땅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삶의 목표이고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과 오복의 쟁취를 의도해서 하는 행동의 값이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 이것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마귀의 지배체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라,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헤밍웨이라든지 마릴린 먼로라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삶이 형통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양이 개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구축해놓은 사회체제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데, 어린양이 개입하면서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 이외는 없다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아니다, 이 땅에서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린양이 오셔서 얘기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일용할 양식 이외는 없다'
그래서 이 셋째 인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 중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으로부터 성공을 캐내려고 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복으로 가득 찬 삶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니라'
땅에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가 돼지나 토끼 같은 짐승들입니까? 도대체 땅에서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여물 먹듯이 먹고 나면 만족해서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겠어요?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뭐죠?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려 했고, 성공하려 했고 많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에서는 먹을 것만 있으면 끝난다, 땅에서 얻을 것은 일용할 양식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다치지 말라.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일용할 양식과 옷 한 벌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네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치지 마라!
일용할 양식만을 땅에서 얻는다고 해서 기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과 옷 한 벌 겨우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내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유는 뭡니까?

감람유는 성막에서 지성소를 가리는 회막 앞에 24시간 등불을 켜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이 항상 밝게 비추고 있으니,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옷 한 벌만 있으면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해서 너희의 기쁨이 줄어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고 밝혀져 있고 길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체제에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양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으로부터 일용할 양식과 옷 한 벌 이외에는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서 마음을 이 땅에 묶어두려는 하나님과 계속 등을 돌리게 하려는 사탄의 지배체제가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제가 받아들인 거 맞습니까?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사탄의 지배체제에 대한 재앙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났다면 오늘부터라도 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리는 그런 재앙들을 내 마음에서 스스로 확인하면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